

“생태 정원에 문화콘텐츠 더해 100년 먹거리 기반 조성”

민선 6기 후반기 새 설계 조충훈 순천시장

“민선 6기 후반기는 시민 체감 행복에 우선순 두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5일 “민선 6기 전반기는 자연과 생태, 정원의 시대 정신으로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등 큰 성과를 냈다”면서 “후반기는 이 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자연과 생태를 기반으로 21세기 성장 동력인 문화 콘텐츠를 더해 순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민선 6기 전반기 2년동안 순천만국가정원 지정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지난해에만 540만명이라는 단일 관광지 국내 최대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동천하구 랍사르 습지 등록으로 국내 최초 연안습지와 하구습지 2개가 랍사르 습지에 등록된 도시가 됐다. 특히 인구 28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1조원을 넘는 예산으로 전남 제1의 도시로 성장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조 시장은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민선 6기 후

신대지구 일대 예술인 센터 건립

육아용품 도서관·노인복지센터 운영

도시형 공단에 일자리 10만개 창출

반기는 자연과 생태, 정원이라는 토양 위에 시민이 행복한 순천의 문화예술 정책과 함께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시민 밀착형 행정을 펼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가장 먼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대지구 등에 도심 생태문화지구와 창작 예술촌을 조성하고 예술인 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 순천문화재단을 공식 출범하고 국제교향악 축제, IAA 국제조형예술협회가 같이하는 국제아트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문화와 예술 정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조 시장은 이와 함께 ‘더 큰 순천 완성’을 목표로 시민이 행복한 ‘6대 행복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체계적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조 시장이 내놓은 행복시책은 ▲아이들의 꿈을



저축해 주는 순천아이 꿈 통장 개설 ▲순천 중고 등학생 교복 구입 지원 ▲청년 도서관비 지원 ▲산후 조리원의 기능을 확대한 순천 출산 양육지

주요 역점사업은

- ▲도심생태문화지구·창작예술촌 조성 및 센터 건립
- ▲저소득 가정소녀 위생용품 지원 등 6대 행복시책
- ▲순천 시청사 신축·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 ▲CCTV 확대 등 시민의 생활밀착형 사업 강화
- ▲오는 9월 순천문화재단 공식 출범

원 센터 운영 ▲출산 육아용품 도서관과 노인복지옹구 종합센터 운영 ▲저소득층 가정 소녀들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등이다.

조 시장은 또 오는 2019년 8월 15일 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한 순천 시청사 신축,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등도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갈 계획이다.

시청사 신축은 올 하반기 시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부터 2018년까지 행정 절차를 추진해 시 승격 기념일인 2019년 8월 15일 착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조 시장은 시민의 안정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오는 2018년까지 CCTV 통

합관제 대수를 1200대로 늘리고, 고압선 송전선로 제로화 사업, 미니태양광 2600대 보급, 국가정원 100% 에너지 자립정원 등 신에너지 시대를 이끌어 갈 방침이다.

조 시장은 이와 함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책 등 여성친화, 아이친화 등 각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청년 창업가 300명 육성,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도시형 공단으로 10만명 일자리 창출 등에도 적극 힘써 나갈 계획이다.

조 시장은 경쟁력 있는 농업이 순천의 희망으로 월 100만 원 이상 월급 받은 농가를 300농가로 확대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도 원도심에서 역세권을 넘어 신도심 아파트까지 확대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조 시장은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은 자연과 생태, 정원에 문화와 예술이 덧붙여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시민들이 행복을 체감할 때 완성되는 것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소통, 협업”이라며 “민선 6기 후반기 2년동안 시민과 지혜를 모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힐링 명소’ 순천만 국가정원 250만명 다녀갔다

12% 증가 전년 기록 한달 앞서...올 500만 돌파 무난할 듯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방문 관람객이 250만 명을 넘어서 올해 500만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이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앞선 6월 말 기준으로 25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순천시는 올해 초 새로운 운영 대행사를 선정해 매표와 검표, 관람차, 경비, 의료 부분 등에 숙련된 인력을 배치해 관람객의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에 노력한 결과로 보고 있다.

또 가족과 연인 관람객을 위한 시민 재능기부 공연, 갯지렁이 도서관과 갤러리를 활용한 전시 행

사, 정원 원예교실 운영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지속해서 운영했다.

봄에는 50여종의 꽃들로 습지센터 1층에 조성한 ‘신비원’, 5월부터는 흑두루미 탄생을 주제로 한 ‘구루구미원’과 네덜란드 정원의 다알리아꽃, 수만 송이의 장미 등이, 최근에는 다양한 수국과 갈라 등 2천여 그루의 여름꽃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시의회 의장에 임종기 의원

부의장 주윤식 의원 선출

순천시의회는 지난 1일 제204회 임시회를 열고 제7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임종기(사진) 의원, 부의장에 주윤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23명 전체 의원이 투표에 나선 이날 선거에서 임 의원은 3차 투표에서 13표를 얻어 10표를 받은 김병권 현 의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주 의원은 13표를 얻어 8표를 획득한 유해숙 의원을 누르고 부의장에 선출됐다. 이번 의장단은 1일부터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순천시의회를 대표하게 된다.

임종기 신임 의장은 “전반기 의장의 뒤를 이어 순천시의회의 참된 역할을 하고자 각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최우수 시책 ‘9988쉼터·로컬푸드’

국가유공자 주택·車 취득세 면제

순천시 민선 6기 전반기 최우수 시책으로 ‘9988쉼터 운영’과 ‘순천형 로컬푸드 출범’이 선정됐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민선 6기 전반기를 결산하고 시민이 행복한 순천 만들기를 위해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시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주요 시책들에 대해 시민 설문조사와 직원 전자설문 등을 거쳐 선정했다.

평가 결과 최고 우수시책은 창조 복지모델로 주목받은 홀몸노인들의 복지공간인 ‘9988쉼터 운영’과 시민이 주도하는 ‘순천형 로컬푸드 출범’이 선정됐다.

매주 금·토요일 저녁에 맛있는 음식, 젊음, 열기가 있는 ‘순천의 세명소 아랫장 야시장’과 지자체 주도의 대한민국 창조경제 모델인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은 우수시책으로 뽑혔다. /순천=박선천기자 psc@kwangju.co.kr

순천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대부금으로 구매하는 부동산과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며,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이 7명에서 10명 이하인 승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일부 면제되며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가유공자에게 취득세 면제 적용 건은 모두 606건으로 금액으로는 9억원에 이른다. 한편 지방세 면제에 대한 문의는 순천시 세무과 부과담당(061-749-6102)에게 문의하면 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kwangju.co.kr

국토에 가치를 더하다

국토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국토정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UX 한국국토정보공사